

비대면 비실시간 대학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의 만족도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satisfac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non-face-to-face non-real-time college applied music piano lessons

권미혜¹

Mi-Hye Kwon¹

요 약

2020년도 두 학기 동안 비대면 비실시간 방식으로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을 진행한 후, 74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과제 영상의 촬영 장소, 레슨 영상의 학습 장소,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만족도,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장단점 등을 조사하였다. 피아노 없이 레슨 영상을 수강하는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족도는 6.06점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이 체감하는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장점 의견으로, 자신의 연주 기록을 통해 자발적이고 객관적인 실력 검증, 자유로운 레슨 시간과 장소, 레슨 영상 반복 재생을 통한 반복 학습이 확인되었으며, 단점 의견으로 음악적 표현 전달의 한계, 자유로운 레슨 시간과 장소에 의한 긴장감과 집중력 부족, 교수자와의 즉각적 소통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교수자는 학생 1인당 레슨시간이 증가한다는 장점과 학생들 서로의 연주 및 발전 과정을 관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더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의 개선방안으로,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접목하는 방안,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과제 영상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 하브루타 교습을 통한 서로 배우기 방안을 제안한다.

핵심어 :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 음악 실기 레슨, 피아노 전공실기, 만족도 조사

Abstract

After conducting non-face-to-face non-real-time college applied music piano lessons for two semesters in 2020, 74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In this survey, piano playing video recording locations, lesson video learning locations, the satisfaction of the non-face-to-face non-real-time lessons,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non-real time non-face-to-face class were investigated. It i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students who take the lesson video without a piano and the satisfaction score was 6.06. As a positive opinion by students, being able to check their skills voluntarily and objectively through their performance records, being able to freely choose the learning location and time, and repeated learning through repeated playback of lesson videos are confirmed. As a negative opinion, the limitation of musical expression, lack of tension and concentration due to free choice of the learning location and time, and difficulties in immediate communication with the instructor are confirmed. By the thought of instructor, there is the additional

¹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Seowon University,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Professor]
e-mail: mihkwon@gmail.com

Received(August 13, 2021), Review Result(1st: August 28, 2021), Accepted(September 10, 2021), Published(September 30,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advantage that of increasing the time of lessons per person and there is the disadvantage of not being able to observe the performance and development of other students. As a way to improve non-face-to-face non-real-time piano lessons, conducting non-face-to-face non-real-time lessons with non-face-to-face real-time lessons, changing the format of assignment videos for smoother communication, and learning from each other through Havruta teaching method is suggested.

Keyword : non-face-to-face non-real-time lessons, applied music, piano lesson, satisfaction survey

1. 들어가는 말

2000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을 통해 기존의 대면 수업을 보조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대면 수업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어서, 이제 교육계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1].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비대면 수업을 급작스럽게 진행하여야만 했다.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수업과 비실시간 수업으로 구분된다. 비대면 실시간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교수자와 학생이 동일 플랫폼에 접속하여 수업을 시행한다. 장소의 제약은 없으나 정해진 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며 학생의 학습 태도 등이 교수자에게 전달되고 비교적 소통이 원활하다.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은 교수자가 촬영한 영상을 학생에게 공유하면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학습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지고 학생은 원하는 만큼 반복 재생이 가능하지만, 학생이 해당 영상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학습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수강하는 음악 실기 수업이라면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 제약이 있다. 한 명의 학생이 비대면 실시간으로 레슨을 받고 있다면 대기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집중력은 떨어진다. 비대면 실시간 수업 진행에서 세심한 음악적 표현을 버퍼링 또는 지연 없이 서로 정확히 주고받으려면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수준의 촬영 장비가 필요하다. 이를 완비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대면 실시간 수업으로 음악 실기 수업을 진행한 많은 교수자와 학생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비대면 수업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음악 실기 수업은 실시간이 아닌 비실시간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연구가 확인된다 [3][4]. 물론,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이 진행되어도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학습 성취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 모형이 연구되고 있지만 [5][6], 비대면 비실시간 음악 실기 수업에 특화된 학습 모형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7].

저자는 S대학 음악교육과 피아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까지는 전공실기의 대면 수업을 시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팬데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을 시행하였다. 1년 동안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자 입장에서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장단점들이 판단되었다. 또한, 실기 수업을 듣고 학습하는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학

습 장소, 만족도, 장단점 등을 조사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교수자와 학생 각각의 입장에서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수업 방식

2.1.1 대면 수업

S대학 음악교육과 커리큘럼에 따라 매 학기 2시간의 전공실기 수업이 이루어졌다. 피아노 전공자는 학년별 약 15명으로 1인의 교수자가 일주일 2시간의 수업 동안 피아노 실기를 교습하였다. 대면 수업시 학생은 한 강의실에 모여서 한 명씩 교수자 앞에서 자신이 연습한 과제곡을 연주하고 교수자는 이를 피드백하거나 연주를 시범한다. 1인당 평균 5분 정도의 레슨 시간이 할당되었다. 한 학기 동안의 과제곡은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소나타 한 곡 또는 소품 세 곡으로, 15주차의 한 학기를 3등분하여 한 악장 또는 한 곡씩 완성하였다. 15주차의 수업 중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고, 2~4주차, 6~9주차, 11~14주차에 레슨이 이루어졌으며, 5, 10, 15주차에 각 학생은 연습한 부분들을 전체 학생 앞에서 암보 연주하는 수업 연주회가 이루어졌다. 수업 연주회를 통해 대중 앞에서 연주하는 훈련이 이루어졌고 다른 학생의 연주를 감상하고 토론하였다.

2.1.2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

2020년도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이 이루어졌다. 주차별 수업 내용은 대면 수업의 내용과 같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은 교수자가 촬영한 공지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4주차, 6~9주차, 11~14주차의 레슨은, 공지 영상, 과제 영상, 레슨 영상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과제 영상은 학생이 자신의 연주를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교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레슨 영상은 과제 영상을 시청한 교수자가 전달하는 피드백과 시범 연주를 포함한다. 과제 영상과 레슨 영상은 학생마다 개별적이다. 교수자는 모든 학생의 레슨 영상을 개별적으로 촬영하여 전달하였다. 공지 영상은 교수자가 전체 학생에게 공통으로 전달하는 피드백 사항을 포함한다. 과제 영상은 학생이 해당 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한 것이기에 그 길이는 약 5분이며, 레슨 영상의 길이는 약 10분이었다. 5주차, 10주차, 15주차에 비대면 비실시간으로 수업 연주회가 이루어지도록, 학생이 자신의 과제 영상을 교수자에게 제출하면, 교수자가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편집 영상을 생성하고 전체 학생에게 이를 공유하였다. 각 학생은 통합 편집 영상을 통해 자신의 연주는 물론 다른 학생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차별 수업 내용

[Table 1] Weekly class contents

주차	수업 방식	대면 수업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
1주차	오리엔테이션		공지 영상
2~4주차	과제곡 1	레슨	공지 영상 과제 영상 레슨 영상
5주차	수업 연주회 - 제1부분	수업 내에서 연주, 감상, 토론	통합 편집 영상
6~9주차	과제곡 2	레슨	공지 영상 과제 영상 레슨 영상
10주차	수업 연주회 - 제2부분	수업 내에서 연주, 감상, 토론	통합 편집 영상
11~14주차	과제곡 3	레슨	공지 영상 과제 영상 레슨 영상
15주차	수업 연주회 - 제3부분	수업 내에서 연주, 감상, 토론	통합 편집 영상

2.2 조사 개요

2.2.1 조사 대상

S대학 음악교육과의 2020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전공실기 과목으로서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실기 수업을 수강한 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학기 및 2학기 전공실기 수업마다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공실기 수업은 Pass/Fail로 평가되는데, Fail로 평가받은 학생은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자

[Table 2] Respondents

학년	학기 (수업명)	인원	비율
1학년	1학기 (전공실기 I)	16	21.6%
	2학기 (전공실기 II)	16	21.6%
2학년	1학기 (전공실기 III)	9	12.2%
	2학기 (전공실기 IV)	8	10.8%
3학년	1학기 (전공실기 V)	11	14.9%
	2학기 (전공실기 VI)	14	18.9%
계		74	100%

2.2.2 조사 방법 및 내용

매 학기가 종료된 직후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는 S대학

학습 관리 시스템에 자동 업로드되었다. 조사 대상자에게 과제 영상의 촬영 장소와 레슨 영상의 학습 장소를 물었다. 또한,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만족도, 선택 가능하다면 대면 수업과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교수자의 레슨 영상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중복 선택 가능한 다수의 문항을 제시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외에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였던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방형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학습 장소

조사 대상자에게 과제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와 교수자의 레슨 영상을 학습하는 장소를 조사하였다. 보기 항목으로 가정, 학교 연습실, 사설 연습실, 기타를 제시하였다.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과제 영상 촬영 장소 조사 결과

[Table 3] Survey on assignment video recording locations

학년	학기 (수업명)	가정	학교연습실	사설연습실	기타
1학년	1학기 (전공실기 I)	4	3	5	4
	2학기 (전공실기 II)	5	6	3	2
2학년	1학기 (전공실기 III)	5	2	2	0
	2학기 (전공실기 IV)	7	1	0	0
3학년	1학기 (전공실기 V)	4	5	2	0
	2학기 (전공실기 VI)	4	9	1	0
소계		29 (39.2%)	26 (35.1%)	13 (17.6%)	6 (8.1%)

[표 4] 레슨 영상 학습 장소 조사 결과

[Table 4] Survey on lesson video studying locations

학년	학기 (수업명)	가정	학교연습실	사설연습실	기타
1학년	1학기 (전공실기 I)	10	1	3	2
	2학기 (전공실기 II)	9	2	3	2
2학년	1학기 (전공실기 III)	6	2	1	0
	2학기 (전공실기 IV)	7	1	0	0
3학년	1학기 (전공실기 V)	6	3	2	0
	2학기 (전공실기 VI)	8	6	0	0
소계		46 (62.2%)	15 (20.3%)	9 (12.1%)	4 (5.4%)

학생의 과제 영상 촬영 장소와 레슨 영상 학습 장소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과제 영상 촬영 장소의 경우 가정(39.2%)과 학교 연습실(35.1%)의 비율이 비슷하고 사설 연습실(17.6%)의 비중이 작았는데, 레슨 영상 학습 장소는 가정(62.6%)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학교 연습실(20.3%)과 사설 연습실(12.1%) 순서로 확인되었다. 가정에 피아노가 없는 학생 일부는 과제 영상을 학교 연습실에서 촬영하지만, 레슨 영상은 가정에서 학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론 수업과 달리 피아노 실기를 위한 레슨 영상의 학습은 단순한 영상 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며 학습하여 체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2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 만족도와 장단점

조사 대상자에게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0점부터 10점까지 1점 단위로 만족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 더불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원하는 수업 방식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또한,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을 진행한다면 적절한 레슨 영상의 길이를 서술형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Table 5] Satisfaction survey on non-face-to-face non-real-time piano lessons

학년	학기 (수업명)	만족도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 선택인원	레슨 영상 희망시간
1학년	1학기 (전공실기 I)	5.55	0/16 (0%)	11.7분
	2학기 (전공실기 II)	6.93	2/16 (12.5%)	10.6분
2학년	1학기 (전공실기 III)	5.33	2/9 (22.2%)	10.0분
	2학기 (전공실기 IV)	7.14	1/8 (12.5%)	10.0분
3학년	1학기 (전공실기 V)	6.09	2/11 (18.2%)	10.9분
	2학기 (전공실기 VI)	5.42	2/14 (14.3%)	11.9분
평균		6.06	9/74 (12.2%)	11.0분

조사 결과 한 학기 동안 수행되었던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의 만족도는 6.06점이었으며,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을 선택한 조사 대상자는 12.2%였다. 조사 대상자가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을 한 학기만 경험하였던 1학기에서의 조사 결과와 두 학기를 경험하였던 2학기의 조사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레슨 영상의 희망 시간은 평균 11.0분으로 조사되었다. 20분 이상의 레슨 영상을 희망한 조사 대상자는 2명 확인되었다. 2020년도에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서 개인별로 제공되는 레슨 영상 시간이 평균 10분인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자들이 개인별 레슨 영상을 더 길게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장단점을 조사하였다. 장점 항목으로 자유로운 레슨 시간과 장소, 레슨 영상 반복 재생을 통한 반복 학습, 자신의 연주 기록을 통해 자발적/객관적 실력 검증의 항목을 제시하여 중복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단점의 항목으로 자유로운 레슨 시간과 장소에 의한 긴장감과 집중력 부족, 교수자와의 즉각적 소통 어려움, 음악적 표현 전달의 한계의 항목을 제시하여 중복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의 장단점

[Table 6] Survey on the pros and cons of non-face-to-face non-real-time piano lessons

구분	항목	인원 (비율)
장점	자신의 연주 기록을 통해 자발적/객관적 실력 검증	29 (39.2%)
	자유로운 레슨 시간과 장소	28 (37.8%)
	레슨 영상 반복 재생을 통한 반복 학습	26 (35.1%)
	1인 레슨시간 증가	2 (2.7%)
	재촬영 통한 문의사항 누락 방지 효과	2 (2.7%)
단점	전염 우려 감소	1 (1.4%)
	음악적 표현 전달의 한계	56 (75.7%)
	자유로운 레슨 시간과 장소에 의한 긴장감과 집중력 부족	27 (36.5%)
	교수자와의 즉각적 소통 어려움	16 (21.6%)
	대중 앞에서 연주할 기회의 상실	2 (2.7%)
	영상 촬영 및 송수신의 어려움	2 (2.7%)
	양질의 공용 악기 사용 불가	1 (1.4%)

학생이 체감하는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장점은, 기록을 통한 자발적/객관적 실력 검증(39.2%)과 자유로운 레슨 시간과 장소(37.8%)와 반복 재생을 통한 반복 학습(35.1%)이라는 의견이 고르게 확인되었다. 소수 의견으로서 대면 수업 대비 1인 레슨시간이 증가한 점이 장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대면 수업시 교수자에게 문의하고자 하였던 바를 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제 영상 촬영시 이를 잊었더라도 재촬영하여 누락 없이 문의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언급한 의견이 있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 우려가 감소한다는 비교과적 의견도 확인되었다.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단점으로서 음악적 표현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75.7%). 절반 이상의 학생이 음악적 표현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혼자 있는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연주를 하고 학습을 진행하기에 긴장감과 집중력이 부족함을 언급한 의견과(36.5%), 교수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어렵고 피드백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 의견도 확인되었다(21.6%). 소수 의견으로서 대중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대면 수업시 전체 학생 앞에서 연주하는 수업 연주회가 한 학기 동안 3회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대중 앞에서의 연주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진행으로 이러한 기회가 상실됨을 아쉬워하였다. 직

접 해야 하는 영상 촬영을 어려워하는 의견과, 양질의 피아노가 있는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을 아쉬워하는 소수 의견도 확인되었다.

3.3 분석 의견

교수자인 저자의 의견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생의 의견을 비교하고자 한다.

저자는 2020년도 두 학기 동안의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실기 수업의 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강의 시간이 자유로워 학생 1인당 레슨 시간이 증가한다. 여럿이 모여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의 대학 전공실기 수업의 현실로 인해 대면 수업시 주 2시간의 수업 중 1인당 레슨 시간은 약 5분이다. 5분 이내에 학생은 준비한 연주를 하고 교수자는 피드백하고 시범 연주까지 보여주어야 한다.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서는 이러한 시간 제약이 실질적으로 사라진다. 피드백할 사항이 많다면 얼마든지 길게 교습을 할 수 있다. 교수자는 이러한 점이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큰 장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조사 결과로 보건대 다수의 학생은 레슨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움의 장점을 언급하면서도 1인당 레슨시간이 길어지는 점이 장점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2.7%), 희망하는 레슨 영상의 평균 시간은 2020년도에 수행한 레슨 영상의 평균 시간인 10분과 비슷한 11.0분에 불과하였다.

둘째, 학생은 레슨 영상을 반복 재생하여 반복 연습이 가능하다.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면 수업 시간 내에 레슨이 이루어진 후 학생은 레슨 지도 내용을 기억해서 연습해야 하나,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서는 혼자 연습하는 동안에도 제공된 레슨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교수자의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교수자의 시범 연주시 손가락 번호, 손 모양 등을 면밀히 참조하여 연습할 수 있다. 이는 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학생이 장점으로 언급한 사항이다(35.1%).

셋째, 과제 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이 남기에 학생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곡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또한, 자신의 기록을 보면서 성찰하고 발전할 수 있다. 대면 수업시 시간 제약으로 인해 학생의 곡 전체 연주를 들을 수 없고, 학생은 대면 수업에서 교수자가 확인하는 부분만 집중 연습하게 되어 연습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러나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시 곡 전체를 연주하는 과제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은 매주 곡의 일부분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게 된다. 또한, 연습 과정은 과제 영상으로 기록에 남고 스스로 이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객관화하며 교수자에게 지적된 실수를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줄일 수 있다. 과제 영상을 통해 학생 본인의 동작, 신체 사용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이 장점으로 언급한 사항이기도 하다(39.2%).

교수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면 수업 중 다른 학생의 연주를 듣고 교수자의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다른 학생의 발전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19년도와 2020년도 모두 전공실기 III 과목은 베토벤 소나타(Beethoven Piano Sonata)를 범위로 하여 32곡의 소나타 중 한 곡을 골라 한 학기 동안 완성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2019년도의 대면 수업시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곡의 과제곡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소나타를 수업 내에서 감상하고 배울 수 있었으나, 2020년도의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서 이러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5주차, 10주차, 15주차에 통합 편집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 연주회를 통해 다른 학생의 연주 영상을 확인할 수는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지만, 매주의 연습 과정과 배움의 과정 전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사 결과를 보건대 학생들이 이를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의 단점으로 언급한 경우는 없어서, 다른 수강생의 연주를 통한 학습 효과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음악적 표현의 한계로 인해 직접 소리를 듣고 배울 수 없다. 악기 실기 수업의 특성상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드는 소리의 현장성과 동시성이 중요하다. 대면 수업이라면 같은 공간과 밀접한 위치에서 소리의 울림을 정확히 듣고 섬세한 표현을 포착할 수 있으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면 정교한 음악적 표현을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화면과 소리의 싱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화질과 음질에 따라 정교한 음악적 표현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대면 실시간 수업이라면 인터넷 속도 등이 더 문제되어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된다. 조사 결과를 보아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음악적 표현의 한계 문제를 지적하였다(75.7%). 이러한 문제는 촬영 장비 기술의 발전과 보급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으나,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촬영 장비를 통해서도 음악적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해결 방법의 연구는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비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에 동시적인 피드백이 불가능하였다. 학생들은 음악에 관한 생각이나 의문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수자가 설명하여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문이나 불안감을 줄이도록 매주 공지 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하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21.6%가 여전히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보면 공지 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 1년 동안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을 대상으로 연습 장소와 학습 장소를 확인하고 만족도를 조사하고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실기 수업의 장단점

을 조사하였으며, 교수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과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실기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피아노가 없는 환경에서 레슨 영상을 학습한다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교수자와 학생 모두 자신의 연주 기록을 통해 자발적/객관적 실력 검증과 레슨 영상 반복 재생을 통한 반복 학습을 장점으로 들었으며, 교수자는 1인당 레슨 시간의 증가를 장점으로 판단하였고 학생은 자유로운 레슨 시간과 장소를 장점으로 판단하였다. 교수자와 학생 모두 영상에서의 음악적 표현의 한계와 소통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들어 영상에서 음악적 표현의 한계를 개선하는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교수자는 다른 학생의 연주를 듣지 못하는 점을 단점으로 판단하였고 학생은 긴장감과 집중력 부족을 단점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실기 수업 발전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접목하는 방안이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학생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음악의 동시성과 현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20년도에 수행하였던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서 수업 연주회로서 통합 편집 영상을 공유하였으나 다른 학생의 연주로부터 학습을 얻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주에 대한 링크를 공유하여 학생들이 함께 감상하고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연주로부터의 학습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과제 영상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2020년도의 과제 영상은 학생이 연주하는 영상만을 포함하였다. 이를 변경하여, 과제 영상에 연주 영상은 물론 연습 과정의 어려운 점과 질문, 지난 연습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음악과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피드백함으로써, 학생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하브루타 교습을 통한 서로 배우기 방안이다. 예컨대, 15주차의 수업 중 1, 2주차의 수업 동안 학생들은 1:1로 하브루타 학습을 통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학생들의 경우, 음악교사로서 음악을 가르치고 표현하는 교수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기에, 하브루타 교습이 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두 학기 동안 동일한 수업 방식으로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을 진행한 이후 학생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형태의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을 몇 차례 진행함으로써 학습 모델을 변경하면서 비교 조사 및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학생의 만족도와 별개로 학습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피아노 실기 수업의 학습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추가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또한, 학기 말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초나 학기 중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수업 진행에 따른 만족도와 학습 효과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전공실기 수업 방식을 고민하는 많은 교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1] M. B. Horn and H. Stacker, Blended, Eduniety, 2017.
- [2] H. Kwon,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Non-face-to-face Online Practical Classes in Music College according to COVID-19 Crisis Response",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vol. 6, no. 1, April 2021, pp. 69-89, doi: 10.36223/jnafme.2021.6.1.004.
- [3] J. M. Park, "Difficulties Experienced by Elementary Teachers in Untact Remote Music Classes Following COVID-19 and Support Plans",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vol. 6, no. 1, April 2021, pp. 91-112, doi: 10.36223/jnafme.2021.6.1.005.
- [4] J. Baek, "University students' efficacy in real-time online class as alternative methodology due to Corona virus(COVID-19) ev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1, November 2020, pp. 539-545, doi: 10.14400/JDC.2020.18.11.539.
- [5] H. Suh, "A Study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in Non-Face-to-Face Cla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November 2020, pp. 157-164, doi: 10.17703/JCCT.2020.6.4.157.
- [6] Y. Lee,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between Online Learning Patterns and Learning Effects in the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8, August 2020, pp. 557-562, doi: 10.5762/KAIS.2020.21.8.557.
- [7] B. Park, "A Study on the Learner's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and Teaching Method of Online Piano Lesson", *Research in Music Pedagogy*, vol. 21, no. 2, September 2020, pp. 121-152.